

주님의 승천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강론집의 한 묵상

2022-5-21

주님의 승천 (책을 구매하기)

1966년 5월 19일 '주님 승천 대축일'
강론

117. 오늘의 전례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신 그리스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란 바로 예수님의 승천(昇天)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계신 그분을,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에게 경배 받으신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자렛에서 드러나지 않게 노동하며 보내신 긴 세월을 묵상했습니다. 또 그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며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줄곧 동행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난 받으신 시기에 그분이 고발되고, 폭행당하며,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슬픔은 부활의 기쁨과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들 신앙의 명확하고도 확고한 바탕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시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짹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

까?" (사도 1,6) 우리의 당혹함과 나약함이 모두 사라지는 날은 대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는 당신께서 하늘로 떠나셨음에 감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나셨을지라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감동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게 축성된 빵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의 인간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행동하고, 바라보고, 웃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분을 가까이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에 지치셔서 우물

가에 앉아 계시는 당신을 (요한 4,6), 라자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시던 당신을 (요한 11,35), 긴 시간 기도하시던 당신을 (루카 6,12), 군중을 가엾게 여기시던 당신을 (마태 15,32) 곁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인성(人性 또는 인간성)이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 승천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게는 언제나 매우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의 승천은 항상 저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승천의 그날에 특별히 맛본 슬픔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당신의 혈관에 피가 흘렀던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을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빵과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118.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법을 배워서 그분을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육 간에 예수님께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체의 양식을 받아먹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빵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 친교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5-56)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요한 14,21)

이 말씀은 결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진실된 삶의 정수입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친교를 맺게 해주는 은총의 삶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요한 15,10)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승천의 날을 알리는 최상의 예고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승천 직후에 새로운 하느님의 사랑이 강림하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의 현존(現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선언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 8,15)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되신 삼위일체의 활동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빵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체와 기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총에 화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교회는, 빵이 실제

로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례력상의 또 다른 이틀, 즉 '성목요일'과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하여 중요한 축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기도하는 삶

119.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시편 42,9) 만약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와 한데 엮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란 한번 드린 뒤에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를 밤낮으로 되새기는"^[1]의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묵상하며^[2] 제 기도가 저녁에 드리는 분

향과 같기를 바랍니다.”^[3] 밤부터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하루 전체가 기도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의 잠조차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에 관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하시면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스승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루카 11,1)

바오로 성인은 “기도에 전념” (로마 12,12) 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본보기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루카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마치 예술가가 붓으로 그린 듯한 문구로 묘사했

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훈련장에서 은총의 도움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인 기도는 한 가지 형식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도의 통상적인 표현을 말씀에서, 또는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셨거나 주님의 천사들과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염경기도(念經祈禱)에서 찾아낼 것입니다.^[4]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형제들이 신심을 표현했던 유구한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전례에 사용하는 기도문(*lex orandi*)이나, 또는 ‘천주의 성모여, 기억하소서’, ‘하례드리나이다, 여왕이시여’(*Sub tuum praesidium, Memorare, Salve, Regina*) 등 성모님께 드리는 교창(交唱)처럼 열절한 사랑을 표현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두세 단어로 함축해 화살처럼 빨리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배우게 된 화살기도가 바로 그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 8,2)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 21,17)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르 9,23) 이 기도는 제 신앙을 강하게 해줍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 8,8)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이 밖에도 사랑으로 가득한 짧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우리 영혼의 심오한 열정으로부터 솟아나 매일매일의 다른 여러 환경들에도 합치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오직 하느님과의 대화를 위해 바쳐진

순간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2천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가능하면 감실 앞에서 홀로 드리는 고요한 대화의 순간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를 '묵상기도(默想祈禱)'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전체가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과, 기억과 의지가 모두 기도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다반사로 반복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우리네 가난한 인간적 삶에 초자연적 가치를 부여하도록 돋는 묵상인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순간들과 소리 내어 올리는 우리의 염경기도(念經祈禱), 그리고 화살기도들 덕분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느님께 끝없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영적인 효과로 넘쳐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친교를 맺기 시작할 때 그의 내적 삶이 성장해 굳세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고되지만 매력적인 분투를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독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의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

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사도직 :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
사업

120.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묵상하는 영혼은 사도적 열정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달아올랐고, 내 생각에 활활 불이 타올랐다.” (시편 39,4) 이 ‘불’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49)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사도적 열정의 불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평화를 위한 전투’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5]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평화를 위한 전투’란 그리스도의 고통을 더

욱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세상 모든 곳에서 펼쳐지는 분투를 뜻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열두 사도들이 그분과 친교를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적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도적 열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봉사’는 사도직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만 기댄다면, 우리는 초자연적 차원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께서

는 적당하지 않은 도구를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다른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도 안에 오셔서 사도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맡김으로써 한 피조물을 통해, 즉 당신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통해 주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도, 그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의 활동으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진 보편 사제직입니다. 이 보편 사제직은 그리스도인으

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어느 정도 더불어 나누도록 합니다. 보편 사제직은 사제가 지닌 직무 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의 흠숭지례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도와 보속을 통해 말과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자신 (Ipse Christus)'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자신만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길로 나아가, 그 길들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모든 세속적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모든 존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 사실을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머물던 곳인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승천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는 장엄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고된 판결이 거두어졌고, 우리를 타락하게 한 결정들이 취소됐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인간의

본성(本性)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6]—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이 거룩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
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을 성화(聖
化)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
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세상
을 더럽힌 죄의 정황(情況)들을 씻어
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봉헌으로 이 세상을 우
리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 드리려면, 당신의 은총과 우
리의 노력을 통해 그분께서 받으실만
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 존재는 초
자연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왜냐하
면 하느님의 말씀이 완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당신의 현존과
당신께서 직접 하신 일들로 이 세상
을 축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위대한 소명은 그리스도
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

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 과업을 우리 어깨 위에 나누어 짊어지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121.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이었던”(1코린 1,23) 그 치욕과 영광 속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모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더욱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협력자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모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 (Ipse Christus)이고, 또한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 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1티모 2,6)

위대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루카 19,13)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긴장을 풀 여유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구성원들에게만 주어진 과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입니다.” (1코린 12,27)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계명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지난 2천 년간 큰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매우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설 자리를 잊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기반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겁 많고 소심한 태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기와 관대함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상 황이 어떻든 간에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하느님 자녀로서 자신들이 받은 소명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도록 가르

치기 위해 계속 절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1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향한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직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직입니다. 내적 생활은 생명의 빵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직은 그런 내적 생활의 명확하고도 필연적인 외적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 생활과 사도직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인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그분의 역할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인류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

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일종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활동이나 직업생활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추가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푸스데이’를 설립하신 그날 이후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네 일상의 일들을 성화(聖化)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특별한 직업을 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삶의 활력이 없으면 하느님의 자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증거자로 온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넘치는 인성을 떠올리도록 분투해야 함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군!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이해하고 하며, 광신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려 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내보이며,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군!” 이렇게 말입니다.

밀과 가라지

123. 저는 여러분께 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실천하기 힘들지만 숭고하고 매력적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영혼의 평화이건, 제도적인 평화이건 또는 사회생활이나 국가 간의 평화이건 간에 실제로는 평화가 없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은 폐쇄적이고 밀폐된 계급사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갈망할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해는 그 부재(不在)에 의해서만 두드러집니다. 착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관대해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것을 베푸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신자와 비타협주의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과 공격의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치를 호소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기에 마침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의 큰 분열을 상상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사제로서 세계가 처한 현재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다면, 우리 주님이 드신 예화 중 하나인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태 13,24-25) 상황은 명확합니다. 밭은 비옥하고 씨앗은 좋았습니다. 밭을 가꾸시는 주님은 제때에 능숙하게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파수꾼까지 두시고 밭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밀 사이에 가라지가 발견되었다면, 그 이유는 파수꾼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잠이 들어 버려서 원수가 밭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부주의한 종들이 주님의 밭에 왜 가라지가 자랐는지 주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마태 13,28)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주신 좋은 것들이 진리와 선함의 도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원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나태함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처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가득 자랐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성소는 결코 불행을 예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배정하신 이 시대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인 이 시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의 성화(聖化)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순진한 갈망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나아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열두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교회의 태동기부터 폭력적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단이 생겨났고, 거짓이 만연하고 증오가 넘쳐났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여전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밭에 가라지가 가득 자라났습니다. 하느님의 밭은 바로 이 땅이며 이 땅은 곧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그곳에 가라지들이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밭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이고 멈출 수 없는 진보'라고 하는 신화에 속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진보란 좋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우 다른 종류의 진보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의 어떤 움직임 안에서 인류가 퇴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얻어온 기반들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냉혹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악은 하느님을 거역하며 때로는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히는 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양심은 경솔하고 상투적이며, 무뎌진 마음가짐 때문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낙관주의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낙관주의는 만족을 지향하는 어떠한 인간적 감각으로부터도 오지 않았

으며, 어리석고 주제 넘는 자기만족으로부터도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기쁨의 씨앗

12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위기라든지 문화적 쇠퇴나 혼란에 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악(惡)의 정확한 의미는 '하느님께 대항하는 공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도직은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도직은 선함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평화와 기쁨의 씨를 뿌리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도직 활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더 큰 상호 존중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으며, 각자 성인이 돼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께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전하는 본보기이자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특징은 베푸는 것보다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매우

실질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더 크고 보편적이며 가톨릭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이해는 하느님의 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추구되는 모든 진실한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형제애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선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의 적(敵-원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열망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편 갈라 나누거나,

서로 구분하거나, 무슨 상품이나 곤충표본처럼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의 삶은 형편없이 이기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1코린 9,22)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행동을, 관대함이라는 선한 씨앗과 이해와 평화를 위한 열망으로 흠뻑 적시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독립성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문제들에 있어서 각자에게 부여된 과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떠맡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유 또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

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스스로의 약점을 갖고 있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느님의 은총과 스스로의 인간적 고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악을 이기도록, 가라지를 제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엄함에 따라 살아가도록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

125.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도적 과업은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서 특별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에 등을 돌려야 한다거나 인간의 본성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인간적인 의미'와 '거룩한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인 것들을 파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罪)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고의적인 악심(惡心)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관심사를 더불어 나누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그 내부로부터 거룩하게 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느님을 부인한다면,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 넘치는 뜻에 반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천성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126. '주님 승천 대축일'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에서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지상에서의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 13,14) 그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불변(不變)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승에서의 우리의 삶이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로지 다음 생에서의 보상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승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오직 하느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행

복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승의 삶에서 이뤄지는 초자연적인 현실의 묵상, 우리 영혼 안에 깃드신 은총의 활동,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불러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도록 운명 지어진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일로부터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는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일치를 이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필리 3,20)인 동시에 완벽하게 이 땅의 시민입니다. 땅의 시민은 고난과 불의와 몰이해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우리 하느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수적으로, 또한 신심 면에서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상(觀想)하는 영혼이 됩시다.^[7]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생각부터 마지막 생각까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 하느님과 끊임 없이 대화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시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께 다가갑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영혼에 어떤 슬픔을 남겨 준다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어머니께 가도록 합시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2-14)

^[1] 시편 1,2 참고.

^[2] 시편 63, 7 참고.

^[3] 시편 141, 2 참고.

^[4] 염경기도(念經祈禱): 교회가 정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어 바치는 기도.

^[5] 콜로 1,24 참고.

^[6] 대 그레고리오 성인(Gregory the Great, St. / 540-604)의 ‘복음서 강론 (In Evangelia homiliae)’에서 인용함.

^[7] 관상(觀想): 하느님을 직관적(直觀的)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

책을 구매하기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junimyi-seungceon/](https://opusdei.org/ko-kr/article/junimyi-seungceon/) (2026-2-18)